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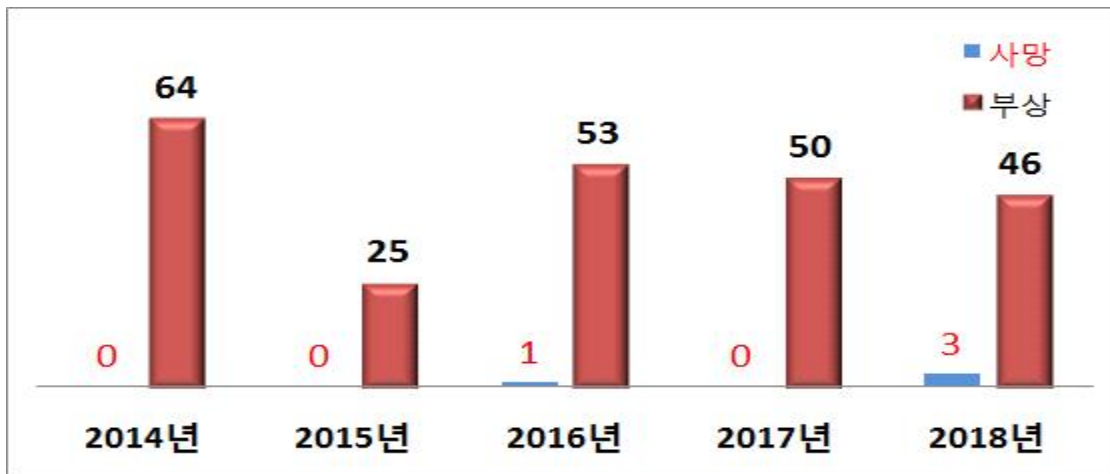
# (9월) 주요 재난 안전 사고 예보

## 추석명절 성묘 및 벌초 안전사고 주의 !

### □ 연도별 추석명절 관련 사고현황

| 구분    | 계<br>(명) | 벌초 및 성묘 관련사고 |          |       |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| 벌<br>뺨       | 쏘임<br>물림 | 예초기·낮 | 탈진 | 낙상<br>길 잃음 |
| 계     | 242      | 157          | 37       | 9     | 18 | 21         |
| 2014년 | 64       | 32           | 17       | 3     | 7  | 5          |
| 2015년 | 25       | 11           | 8        | 0     | 3  | 3          |
| 2016년 | 54       | 45           | 5        | 1     | 2  | 1          |
| 2017년 | 50       | 36           | 2        | 4     | 5  | 3          |
| 2018년 | 49       | 33           | 5        | 1     | 1  | 9          |

### 《연도별 사상자 현황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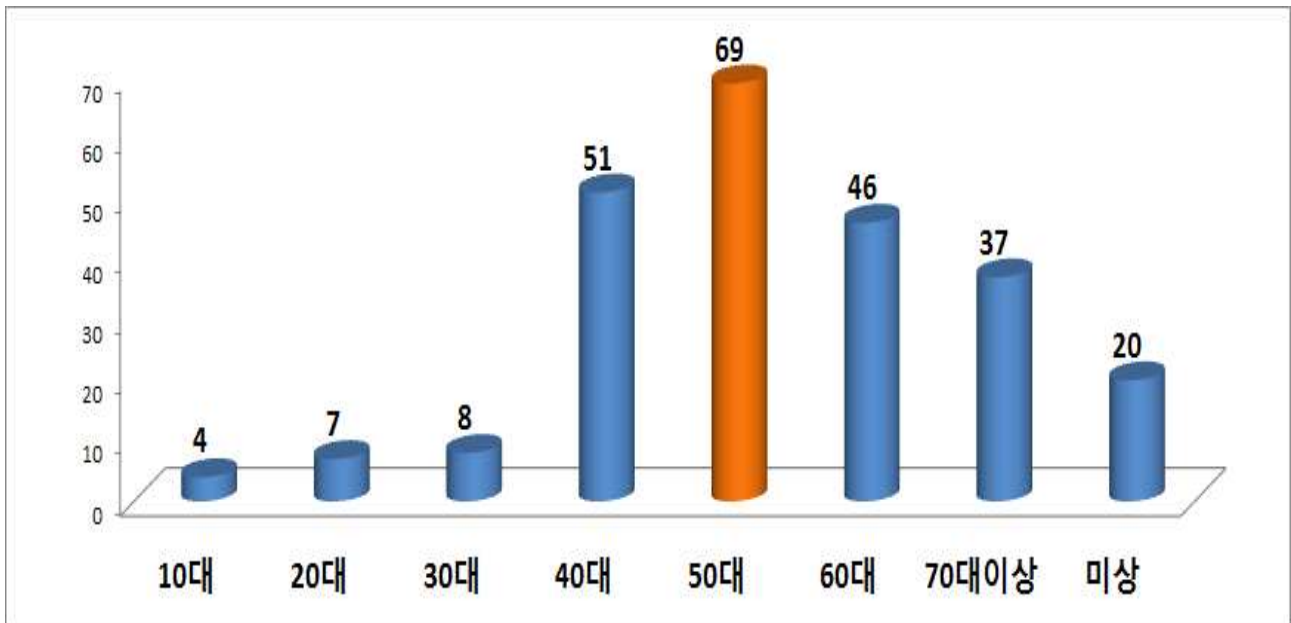


- 최근 5년간('14 ~ '18) 도내 추석 명절 성묘 및 벌초 관련 안전사고로 총 242명(사망 4, 부상 238)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, 이 중 벌 쏘임 사고가 64.9%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, 벌초 중 예초기 및 낮 등에 의한 부상자가 15.3%(37명), 낙상·길 잃음 7.4%(18명), 탈진 등 기타 30명으로 나타났다.

□ 사고 유형별 세부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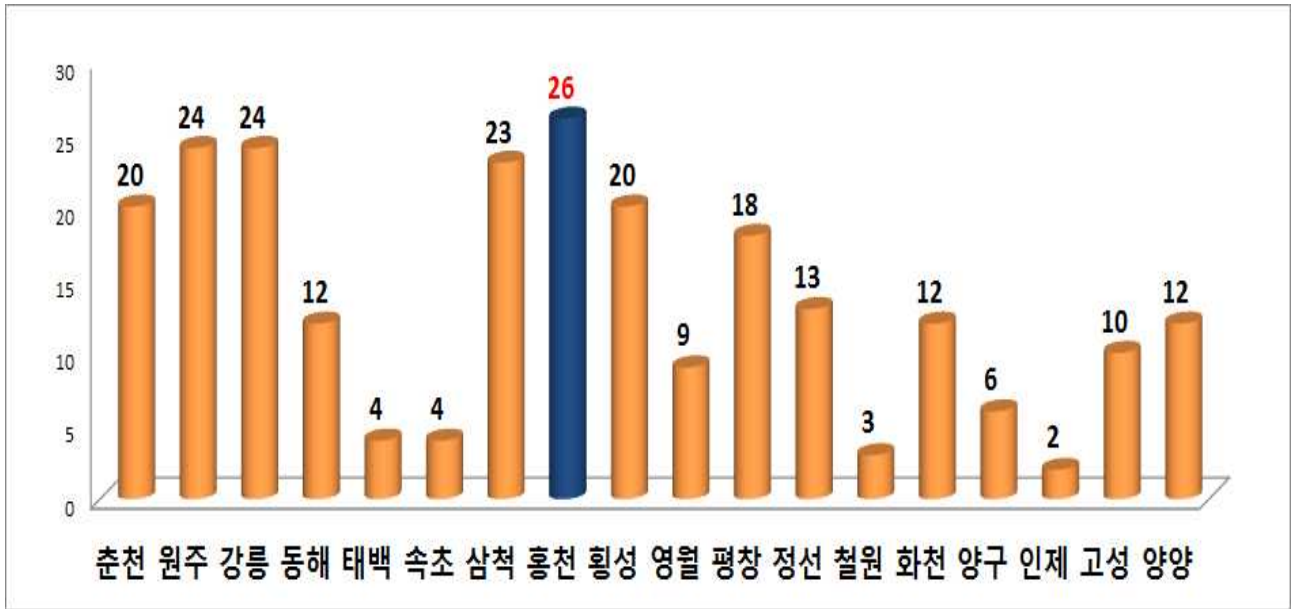


《연령별 사고현황》



○ 사상자 연령별로 살펴보면, 50대가 28.5%(69명)으로 가장 많았으며, 40대 51명, 60대 46명, 70대 이상 37명, 미상 20명, 10~30대 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, 남성이 85.1%(206명) 여성 30명, 미상 6명 등이 었다.

□ 사고 지역별 세부현황



| 계   | 춘천 | 원주 | 강릉 | 동해 | 태백 | 속초 | 삼척 | 홍천 | 횡성 | 영월 | 평창 | 정선 | 철원 | 화천 | 양구 | 인제 | 고성 | 양양 |
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242 | 20 | 24 | 24 | 12 | 4  | 4  | 23 | 26 | 20 | 9  | 18 | 13 | 3  | 12 | 6  | 2  | 10 | 12 |

○ 지역별로는 보면 홍천 10.7%(26명)으로 가장 많았고, 원주, 강릉 24명, 삼척 23명, 춘천·횡성 20명, 평창 18명, 정선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# 벌초 · 성묘시 안전사고 예방요령

## ■ 벌 쏘임 대처요령

- 벌을 자극하는 향수, 화장품, 헤어스프레이 사용 등은 자제
- 벌집을 건드렸을 때 큰 동작으로 뛰어서 도망가지 말고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하기
- 벌집을 없애려고 분무형 살충제 등에 불을 붙여 벌집제거를 시도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주의
- 만약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통증과 가려움 등을 가라앉히는데 도움
- 가벼운 증상이 아닌 호흡곤란 및 의식장애가 일어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 방문

## ■ 뱀 물림 대처요령

- 산이나 들에 나갈 때 긴팔 옷이나 장화 등 보호의를 착용하고 잡초가 많은 곳은 막대기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 할 것
- 뱀에 물렸을 때에는 물린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 물린 상처가 있는 부위보다 5에서 10cm 위쪽을 수건으로 묶도록 할 것
- 독사에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 독을 빨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, 사람의 입안 상처나 충치를 통해 독이 전염될 수 있으니 이 같은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할 것
- 무엇보다 뱀에 물렸을 경우 119에 신고하고 간단한 응급처치 후 최대한 빨리 항독소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게 가장 중요

## ■ 예초기 사고 대처요령

- 작업도중 돌이나 칼날이 튀어 다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칼날 보호 덮개를 부착
- 예초기의 각 부분의 볼트 및 너트, 칼날의 부착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작업
- 보호안경, 안전화,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여 사고에 철저히 대비
- 예초기의 칼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, 경사가 심한 비탈면이나 굵은 나무 옆,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
- 이동 중에는 꼭 엔진을 정지시키고 작업하는 주위 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